

 <small>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</small>	<b>보도자료</b>	작성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
	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담당자 국장 황성현 팀장 이기병
		연락처 02-721-1803 02-721-1810

## 일제강제동원 희생자 유족, 코로나19 이후 “강제동원 역사현장 추도순례 재개” - 제주, 부산지역 잊혀진 역사, 강제동원 다크 투어 -

-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(이사장 김용덕)은 ‘22. 7. 6. ~ 7. 8. 2박 3일간 제주·부산지역 일제 강제동원 역사 현장을 순례(잊혀진 역사, 강제동원 다크투어)하며 강제동원 희생자를 추모하는 추도식과 헌화식 행사를 가졌다.
- 이번 순례에 참여한 유족 18명은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‘기억의 터’ 위패 봉안 자의 자녀·형제자매들로 강제동원 희생 지역 추도순례를 통해 희생자의 넋을 달래고 유족에 대한 위로와 현장 방문을 통한 참가자의 역사의식을 높이기 위해 준비했다.
- 순례단은 일본 해군의 자살 특공부대 진지 시설인 제주 성산 일출봉 해안 동굴진지와 중일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만든 군사기지인 알뜨르 비행장, 일제 강점기 해안 매축으로 인해 생긴 부산 매축지 마을 등 제주, 부산지역 강제동원지를 탐방하였다.

- 또한, 국내 유일의 강제동원 전문 박물관인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을 견학하고 역사관 내 ‘기억의 터(위패관)’에서 추도식을 하고 추모 공원에 있는 추모탑 앞에서 분향과 헌화를 하였다.
- 추도사에서 김용덕 이사장은 “코로나19 확산 및 방역지침에 따라 2020년, 2021년 추도순례 사업을 시행하지 못해 안타까웠으나 올해 유족분들을 모시고 국내 강제동원지 현장을 방문할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” 라고 말했다.
- 아울러, 재단은 강제동원 피해 진상을 규명하며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데 앞장서며 유족들의 상처를 보듬는 사업을 활성화하는데 노력하겠다” 라고 밝혔다.
- 유족들은 “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의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됐고 역사관에서 아버지 성함 석 자를 대하니 감개무량하다” 라고 소감을 전했다.
- 한편, 이번 순례단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고령의 유족들에 대한 간호 의료 인력을 지원하였고 재단 영상사업에 참여했던 대학생도 참가하였다.
- 재단은 앞으로도 “미래세대에게 강제동원 피해·희생자의 아픔을 전달하고 희망과 교훈을 줄 수 있는 다채로운 사업을 기획하겠다” 라고 밝혔다.

**붙임**

**국내 추도순례 주요 사진**

부산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추모탑



제주 항일기념관



제주 일출봉 해안 일제 동굴진지



제주 송악산 일제 동굴진지

